

전주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추진

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2024년까지 86억원 들여 하천숲 등 인프라 구축

전주시 삼천 상류지역을 반딧불이 등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관련 다울담당 위원, 용역기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가 최근 평화동 학전마을에서 생태관광 전문가와 인근 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보전과 이용'이라는 생태관광지 특성을 살리고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경관 농업 추진 생태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신흥교에서 원당교에 이르는 삼천 상류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환경보전시설과 탐방시설, 지역사회관련시설 등을 갖춘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생태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머리를 맞대고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다음 마당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삼천 반딧불이를 깃대종으로 삼천 상류지역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다.

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9개년간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86억을 투입해 애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는 하천숲(9745㎡)과 생태탐방센터(660㎡), 탐방로 등 반딧불이 생태마을을 조성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의 마을경관을 개선시키고, 자연 생태박물관 2층을 리모델링해 반딧불이 홍보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반딧불이를 청정 전주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만들고, 반딧불

이가 서식하는 삼천 상류지역을 주변 농촌마을 생태체험과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이 완료되면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삼천인근 주민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친환경적인 반딧불이 생태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태공간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친환경적인 반딧불이 생태계 보전으로 생태도시 전주의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고, 반딧불이 자연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체류형 생태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헤어진 여친 감금 20대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7시간 동안 끌고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경찰청에서는 1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A(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완주군 한 대학교 앞에서 B(22·여)씨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태운 뒤 감금하고 충남 공주와 경기 용인 서울 등을 돌며 B씨를 7시간 동안 차에 태우 돌아왔다.

조사결과 A씨는 일주일 전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제3대 전북 공무직노조 출범

본부 의장 및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제3대 출범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배 도의회 의장, 이관로 전북본부장, 두형진 한국노총전북본부 의장 및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주시,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

전국 7개 팀 참가 열전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와 세기의 대결을 벌이며 바둑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가 국내 시니어 바둑의 최강지역을 가리는 바둑대회에 출전한다.

전주시는 '바둑의 고장' 전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되는

2016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바둑리그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주 한옥마을팀을 비롯해 경기 부천 판타지아, 경북 상주 꽃강, 충북 음성 인삼 전남 영암 월출산 서울 충암역원, 인천 예림도어 등 7개 팀이 참가해 팀당 2차례씩을 벌이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팀은 한국기원 소속 50세 이상 프로기사 중 지역연고제와 드래프트제를 혼용해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위해 감독인 정동식 8단을 비롯해 최규병 9단과 강훈 9단, 나중훈 7단, 고재희 8단 등 50인으로 팀을 꾸렸다.

단장을 맡은 김진환 전주시바둑협회장은 "조호현 9단과 서봉수 9단, 유창혁 9단 등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대회 참가로 바둑의 본 고장인 전주에서 다시 한 번 바둑의 열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드시 우승해 전국 제일의 바둑 대표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사업 펼쳐

노인 우울·자살충동 예방 일반 시민까지 대상 확대

전주시보건소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노인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울증과 자살 시도, 자살충동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 회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국내 자살율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중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자살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24.5명꼴로 급증해 공중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의 높은 자살률(2014년 기준 남자 사망자수 103명, 여자 41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손뜨개 프로그램과 종이공예, 태극권 웃음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노인 우울과 자살충동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관내 경로당 60곳에는 심리검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힐링 경로당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는 월 2회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운영한다.

또, '다실(다가가는 설렘)' 아카데미의 생명사랑 봉사단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고자의 위기개입 서비스(응급출동, 긴급 의료비 지원), 조기평가 클리닉을 통한 조기발견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주요 교차로와 행사장 등에서 매주 1회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안 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과 연계해 시민이 안전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조기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 등으로 생명존중의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이 지난 2009년부터 위탁운영하는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급·만성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 위기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김영재기자

청년 창업 기관들 하나로

'창업&고용존' 출범 창조열린공간 구축

전북도 청년들과 일자리를 연결해줄 '중매인'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고용존'이 18일 전북창조경제센터에서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 이영구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조봉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을 비롯해 취·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질 높은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을 하나로 묶은 창조열린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주)효성과 연계해 고용다달돌과 사회맞춤형학과 프로그램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과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영수기자

앞으로 '창업&고용존'은 '일자리 팔구사요(220-8845) 카페'를 운영,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관련 교육은 5주동안 약 100시간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고용존'의 능률을 위해 전북도와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이 연계한 '고용 협의회'를 구성한다.

'고용 협의회'에서는 ▲'일자리 중매인'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과 일자리의 연결 ▲'취업트레이너'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능력 배양 ▲'인재인큐베이터'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진수 센터장은 "현재 중앙정부는 고용존 활성화를 위해 고용존 구축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담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취업과 창업 투 트랙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십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경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협회 대표
- 스피치 리더십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코칭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경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탐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 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